

AS SPECIAL AS IT GETS



호텔 연재 기획 120 천연의 멋, 폰테네이 호텔

# THE FONTENAY: IN HARMONY WITH NATURE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명소 알스터 호숫가에 들어선 폰테네이 호텔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호수의 아름다움에 건줄 만하다. 주변 환경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호텔의 진가는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있다.

The Fontenay is situated on the Alster Lakes, which are the most famous tourist attractions in Hamburg, Germany. It boasts an exterior and interior that emulate the natural beauty of the water around it. Above all, however, this five-star hotel's true charm lies in the thoughtful consideration it has for its guests.

by 문수진(함부르크) Moon Su-jin (Hamburg)



독일 북부에 위치한 함부르크는 항구와 국제공항을 갖춘 교통의 요지다. 일찌감치 무역과 상공업으로 번성했고, 최근에는 IT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첨단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건축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점도 함부르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프리츠 호거의 칠레하우스와 헤어초크와 드뢰롱의 엘프필하모니를 비롯해 대칭으로 줄지어 들어선 붉은 벽돌 건물이 도시 미관을 책임진다. 하지만 함부르크의 아름다움에 정점을 찍는 건 무엇보다 녹음 가득한 자연이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널찍한 공원과 하늘이 그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넓은 알스터 호수는 '그린 시티'라고 불리는 함부르크의 자랑이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롬바르트 다리와 케네디 다리를 기준으로 작은 쪽 호수는 비넨알스터, 큰 쪽은 아우센알스터로 구분된다. 양쪽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비넨알스터 주변은 상업지구다. 에메랄드색 지붕이 화려하게 돋보이는 함부르크 시청, 노이어 발 명품 거리부터 이어지는 백화점과 쇼핑 매장이 비넨알스터를 둘러싸고 있다. 반면 아우센알스터는 한적한 녹지대다. 호수 주변에는 고급 주택과 사무실이 자리해 있어 해가 지면 최소한의 불빛과 풀벌레 소리만 남고 적막에 잠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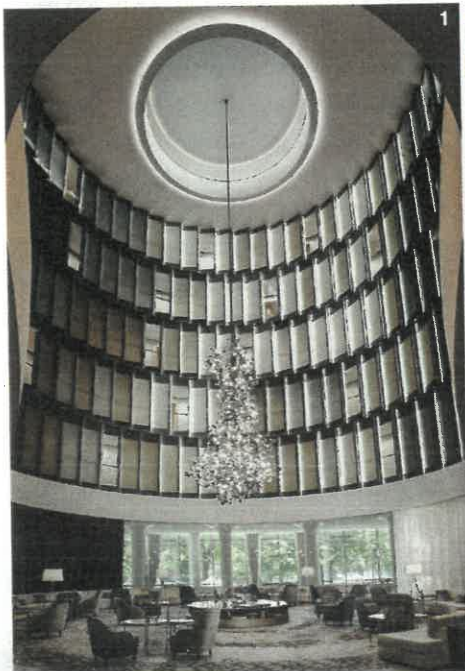
**2018년 3월**, 아우센알스터 호숫가에 5성급 호텔 폰테네이가 문을 열었다. 폰테네이는 호텔이 위치한 길목의 이름이다. 부지의 소유자이자 함부르크의 노른자 땅을 보유한 미국 출신의 거물 존 폰테네이에서 비롯됐다. 호텔의 설계는 독일 건축가 안 슈퇴르머가 맡았다. '공원 속 호텔'을 만들기로 한 그는 알스터 호수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아 클래식 모던 컨셉트의 호텔을 구상했다. 그 결과 지구에 착륙한 우주선처럼 모서

**H**amburg,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Germany, is a major transportation hub with a port and an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past, trade and industry brought it prosperity, but now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the city a prominent high-tech location. Visitors to Hamburg can also see well-known works by great architects. Symmetrical rows of red-brick buildings are an indelible feature of the urban landscape, including the Chile House, which was created by prominent German architect Fritz Höger, and the Elbphilharmonie, a concert hall created by the renowned Swiss firm Herzog & de Meuron. What perfects the city is its lush greenery. The Alster Lakes, which are within the city limits, are a source of pride for the people of Hamburg, as they are part of the reason why their home is referred to as a "green" city. The Outer Alster, which is the larger of the two lakes, and the Inner Alster are separated by the Kennedy and Lombard bridges. Although the lakes essentially form a single body of water, the inner and outer parts are considerably different in terms of ambience. The Inner Alster is situated near the city's commercial district, which includes the green-roofed Hamburg City Hall and the upmarket shopping street of Neuer Wall with its luxury shops and expensive boutiques. The Outer

Alster, however, is lined with green, tranquil spaces among mansions and office buildings. As such, the area often falls into a deep silence punctuated only by the sound of insects.

**The Fontenay** is a five-star hotel on the shores of the Outer Alster that opened in March 2018. It was named after John Fontenay, a shipbroker from Massachusetts, U.S., who bought the plot of land where the hotel sits today. German architect Jan Störmer envisioned a concept of a "hotel in the park," so he built a classic modern hotel inspired by the fluid lines of the lake nearby. As a result, a refreshing white building was created with a facade of smooth, glazed surfaces reminiscent of a spacecraft's hull. From above, the hotel looks like three large interlocked circles that resemble an elongated three-leaf clover. The three circular wings narrow into a center where they are interconnected. In essence, the design allows the building to be surrounded by nature. Without any hard edges, the building has curved contours that provide its unique shape. This design allows all of the hotel's guest rooms to have private balconies where guests can enjoy their wonderful surroundings. As most of the building's exterior is paneled with transparent glass, ever-changing streams of light flood into the interior. There is also a small landscaped courtyard in the middle of the building. There are no artificial boundaries separating the hotel property from its surroundings. Instead, grass and trees blend seamlessly with the hotel entrance, making for a unique welcome.

The Fontenay's circular design continues inside the building. When stepping into the lobby, guests are greeted by an expansive and uninterrupted view of the interior. The floor and ceiling are in an elegant white. Check-in is carried out at a reception desk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lobby, where



1 아트리움 라운지 2 도서관  
1 Atrium Lounge 2 Library



1 딜럭스 룸 2 알스터 스위트룸  
1 Deluxe Room 2 Alster Suite

리 하나 없이 매끄럽게 굴곡진 새하얀 건물이 완성됐다. 위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면 3개의 커다란 원이 맞물린 모양새다. 마치 길게 늘인 세입클로버 같다. 내부는 오목하게 들어갔다가 볼록하게 나오며 3개의 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쉽게 말해 건물 후면이 없고 빙 둘러 이어진 형태다. 이 독특한 모양 덕분에 모든 객실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테라스를 갖게 됐다. 건물의 안과 밖을 모두 유리로 둘러싸기 때문에 호텔 안에서든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빛을 느낄 수 있다. 3개의 원이 겹치는 중앙, 즉 건물 안쪽엔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호텔 주변에도 따로 인위적인 경계를 두지 않고 잔디와 나무를 심어 호수 주변 공원과 호텔 입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원형의 미학은 내부에서도 발현된다. 공간을 막거나 가로지르는 벽이 없기 때문에 로비에 들어서면 순간 시야가 좌우로 넓게 트인다. 군더더기 없이 하얀 바닥과 천장은 우아하다. 체크인인 로비 중앙의 리셉션 데스크에서 직원과 투숙객이 1:1로 마주 앉아 진행된다. 능숙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유도하는 직원이 긴 여정에 지친 투숙객을 위해 웰컴 드링크도 준비해 준다.

로비가 있는 층에는 넓은 아트룸 라운지와 파크뷰 레스토랑, 1000여 권의 책을 갖춘 24시간 오픈 도서관, 프리미엄 시가 구비된 흡연실, 최신 설비를 갖춘 4개의 미팅 룸이 있다. 호텔 중앙의 라운지는 27미터의 높은 천장을 자랑한다. 천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나뭇가지 모양의 은빛 샹들리에가 위엄 있게 달려 있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유리 패널이 도미노처럼 휘감고 층층이 쌓여 있는데, 패널의 조명이 시시각각 원을 그리며 신비롭게 빛난다. 조식은 라운지 옆에 있는 파크뷰 레스토랑에서 제공한다. 신선한 주스와 구운 빵, 샐러드 등이 뷔페로 제공되고 계란과 팬케이크 요리를 별도로 주문할 수 있다. 점심과 저녁에는 제철 재료를 사용한 코스 메뉴가 준

one-to-one service is provided. In addition, kind and thoughtful hotel clerks prepare beverages for guests who arrive exhausted from their journey.

On the ground floors lie the lobby, the Atrium Lounge, the Parkview restaurant and a 24-hour library with more than 1,000 books, as well as the Smoker's Room, where premium cigars are offered. There are also four meeting rooms equipped with cutting-edge facilities. The large Atrium Loung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building with an atrium 27 meters high. It offers guests a selection of light beverages and snacks. A magnificent silver chandelier sculptured with steel tree branches hangs from the ceiling. Looking up, the atrium's curved walls are fitted with strips of glass panels of varying shades, creating a mysterious ambience. As for dining, breakfast is served at Parkview, which is next to the lounge. Fresh juice, freshly baked bread, a variety of fruit and salads are offered in buffet style, and egg dishes and pancakes are available upon request. À la carte menu items can be ordered to your table. For lunch and dinner, full-course meals made with seasonal ingredients are served. In spring and summer, the lounge's terrace is open, allowing guests to enjoy lake views while dining.

On the upper floors of the hotel are the Fontenay Bar and the fine-dining restaurant Lakeside. The bar, which is located on the sixth floor, offers a 320-degree panoramic view with a variety of alcoholic drinks available until 2 a.m. The one-Michelin-star

restaurant Lakeside, which is located on the seventh floor, is led by Swiss chef Cornelius Speinle. The gourmet experience takes place near the hotel's glass facade that overlooks the nearby lake and cityscape.

**There are 130 guest rooms,** including 17 suites, at The Fontenay. Three spacious elevators at the center of the building transport you to guest rooms with floor-to-ceiling glass windows that offer spectacular views and perfect sound and thermal insulation. The hotel's balconies offer tables and chairs that facilitate the enjoyment of outdoor vistas. Natural light floods into the guest rooms during daylight hours. Seemingly inspired by sand and lakes, the interiors of the guest rooms are awash in natural hues of soft turquoise and beige. They are fitted with oak parquet flooring and rugs are placed under furniture to reduce dust. The furniture is customized and made of high-end materials such as solid wood and stone. The tables, sofas and chairs are circular in form, coinciding with the hotel's design concept. Although equipped with all the necessary facilities, the hotel pursues minimalist principles, creating a generous sense of space. All peripheral elements are made invisible. For example, smoothly finished walls conceal cabinets, and a mirrored wall acts as the dressing room door. The power sockets at the desk and small tables are hidden. The most impressive feature of the guest rooms' interior design, however, is surely the placement of the televisions. The

비된다. 봄과 여름에는 테라스 자리가 개방되어 눈부신 호수를 배경 삼아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호텔의 상층에는 폰테네이 바와 레이크사이드 레스토랑이 있다. 6층에 위치한 폰테네이 바는 320도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며, 새벽 2시까지 운영한다. 7층에 있는 레이크사이드는 스위스 출신의 셰프 코르넬리우스 슈파인레가 책임을 맡은, 미술랭 원스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이곳에서는 알스터 호수와 함부르크 시내 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객실은** 17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해 총 130개로 호텔 중앙에 설치된 3개의 널찍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고즈넉한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창은 커도 완벽한 방음과 방한은 기본이다. 테라스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낮에는 자연광이 한껏 들어와 조명을 켜지 않아도 실내가 밝다.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모래와 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듯, 샌드 베이지와 청록 계통의 자연 색감을 사용했다. 바닥에 결이 살아 있는 오크 나무를 깔고, 가구가 놓인 자리에는 러그를 깔아 실내 이동 시 먼지가 덜 나게 했다. 가구는 원목과 대리석 등 고급 소재로 맞춤 제작했고, 외관과 통일된 콘셉트를 적용해 끝이 둥근 선형을 이룬다. 필요한 모든 시설을 빠짐없이 갖추면서 미니멀한 내장형 디자인을 구현해 공간을 확보했다. 얼핏 보면 매끈한 벽이지만 안에 수납장이 있고, 벽에 붙은 거울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드레스 룸이 나오고, 책상과 미니 테이블 안쪽에 콘센트를 넣는 등 부차적인 요소를 숨기는 식이다. TV를 놓은 방식도 인상적이다. 전선을 없애고 TV를 회전식 기둥에 부착해 침실이나 소파, 어디서든 원하는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욕실은 건식형으로 변기와 샤워 룸, 세면대와 화장대 영역이 구분돼 있어 위생적이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최신 비데를 갖췄고, 배수와 환기가 잘돼 늘 쾌적하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공간은 바로 샤워 룸이다. 한쪽 벽에 아이콘이 그려진 엄지손가락만 한 버튼이 있는데 샤워기와 냉온수, 조명을 켜고 끄는 용도다. 음표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 물의 온도가 숫자로 표시돼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다. 비누와 물이 잔뜩 묻은 손으로 더듬어 가며 힘들게 샤워기를 돌려 본 사람이라면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할 수밖에 없다.

폰테네이 호텔의 강점은 일일이 나열하기 벅할 정도로 많다. 혁신적인 디자인, 최신식 디지털 설비, 고급 어메니티, 전문적인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변 환경과 이용자의 관점에서 출발했다. 럭셔리리의 정의를 새로 쓴 이 호텔을 모두가 환영하는 이유다. ■

문수진은 <비온드>의 에디터다.



1 폰테네이 바 2 미팅 룸 3 폰테네이 스파 테라스  
1 Fontenay Bar 2 Meeting room 3 Fontenay Spa terrace

television is attached to a vertically rotating column at eye level, allowing it to swivel.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where you are situated, the television can be adjusted for the perfect angle. Also, the television's power cables are hidden, creating a neat space for viewing comfort.

The bathrooms have a separate toilet, shower room, washstand and dressing table, keeping each of the private spaces much more sanitary. They are fitted with state-of-the-art bidets with touch-screen controls, and excellent drain and ventilation systems provide convenience with a touch of pleasantness. Another feature of the guest room that draws particular attention is the shower. On one of the walls are buttons that turn the shower on and off and control water temperature. All that is needed is for a button to be pressed, and from there the water temperature can be set exactly to individually desired levels. This function is a thoughtful one when considering those frustrating moments when soap-covered hands make it difficult to manipulate the shower control valve.

The Fontenay hotel has so many merits that it is hard to list them all here. Ranging from innovative design and state-of-the-art digital facilities to premium amenities and specialized services, the hotel goes beyond your expectations. At The Fontenay, everything starts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a user-centered perspective that distinguishes the hotel from others. These are the reasons why many have welcomed the hotel's arrival as a redefinition of luxury. ■

Moon Su-jin is an editor for beyond.

## BE SURE TO KNOW 이것만은 꼭 알아!

### Recommendations

폰테네이에는 고급 브랜드 라 메르 제품을 사용하는 스파 시설을 비롯해 24시간 운영하는 피트니스 룸이 있다. 하지만 이왕이면 평탄하게 조성된 호수 주변을 달려 보자. 고목 사이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아름다운 새소리는 덩이다. The Fontenay offers a luxury spa where high-end skincare products from La Mer are used. There is a 24-hour fitness room available, but a jog on the 7.5-kilometer route around the Outer Alster right outside is recommended.

☎ Rooms 130 guest rooms ☎ Restaurants and Bar Parkview, Lakeside, Fontenay Bar, Atrium Lounge Facilities Smoker's Room, Fontenay Spa, library, infinity pool, fitness room Address Fontenay 10, 20354 Hamburg, Germany Phone +49 (0) 40 605 6 605-0 Website www.thefontenay.com